



가족이 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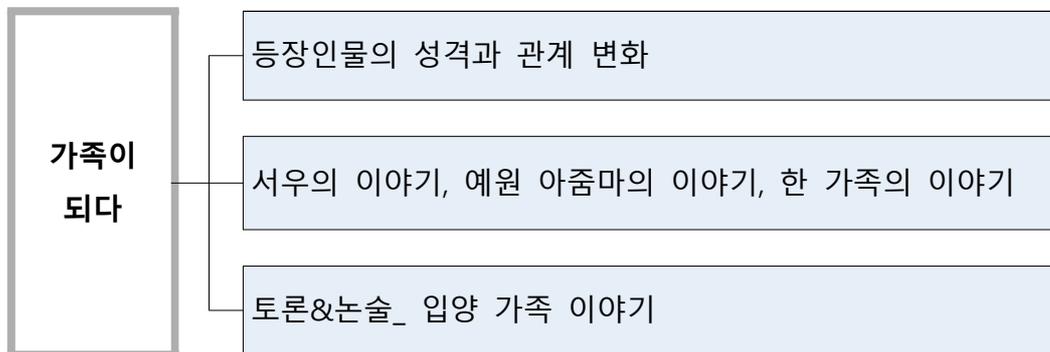
- * 글 : 김영주
- * 그림 : 안병현
- * 펴낸곳 : 단비청소년
- * 정가 : 12,000원
- * 분량 : 164쪽
- * 대상 : 청소년

· 책 소개

2살배기 동생과 세상에 홀로 남게 된 15세 소년을 통해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다

가장 큰 힘이 되어 주면서도 때론 가장 큰 짐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마도 가족일 것이다. 소설 속 서우는 아픈 엄마뿐만 아니라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두 살배기 동생까지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 하루하루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그래도 엄마가 자기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서우에게 엄마는 큰 의지가 되어 준다. 서우는 엄마가 이렇게라도 오래오래 자기 곁에 있어 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엄마는 서우의 바람에도 끝내 하늘나라로 갔고, 서우는 동생과 달랑 둘이 세상에 남게 된다. 서우는 “내게는 서준이가 있다. 서준이가 있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쫓지 말자.”라는 말을 되풀이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려 안간힘을 썼다. 그런 서우에게 잊을 만하면 나타나는 히스테리 걸한 한 아줌마. 서우는 그 아줌마가 처음에는 무서웠고, 점점 짜증 났고, 그리고 어느 순간 자꾸 기억나게 되었다. 그리고 서서히 서우는 그 아줌마와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가족이라는 인연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 주요 독후활동





독서 전

1. 이 책의 앞표지를 보고 드는 생각과 느낌, 궁금한 점 등을 써 보세요.

번호	앞표지를 보고 드는 생각과 느낌, 궁금한 점
1	
2	
3	

2. 『가족이 되다』 뒤표지에 쓰여 있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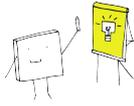
서둘러도 우리는 천천히 가족이 되었다.
이제 우리가 이어 놓은 이음새는 어딘지 찾을 수 없다.
가족이라는 귀하고 아름다운 사랑만이 존재할 뿐.

아이 없는 아픔을 지닌 부부와
2살배기 동생과 세상에 홀로 남게 된 15세 소년.
그리고 이 두 가족이 서로의 빈자리를 채우며 만들어 낸 또 하나의 가족.
서로 다른 이들은 어떻게 가족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가족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걸까?

1) 부부와 소년의 빈자리는 무엇인지 각각 적어 보세요.

2) 서로 다른 이들이 가족으로 이어질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생각을 적어 보세요.

3) ‘가족’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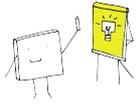
독서 중

국어 교과_독서 단원 연계 읽기의 즐거움

- 중요한 사건 정리하며 읽기
- 인상 깊은 내용 정리하며 읽기
- 자신의 생각을 쓰며 읽기
- 책 내용과 관련한 질문 떠올리며 읽기

※ 『가족이 되다』를 읽으면서 인상적이었던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어느 부분인가요?	어떤 점이 특히 인상적이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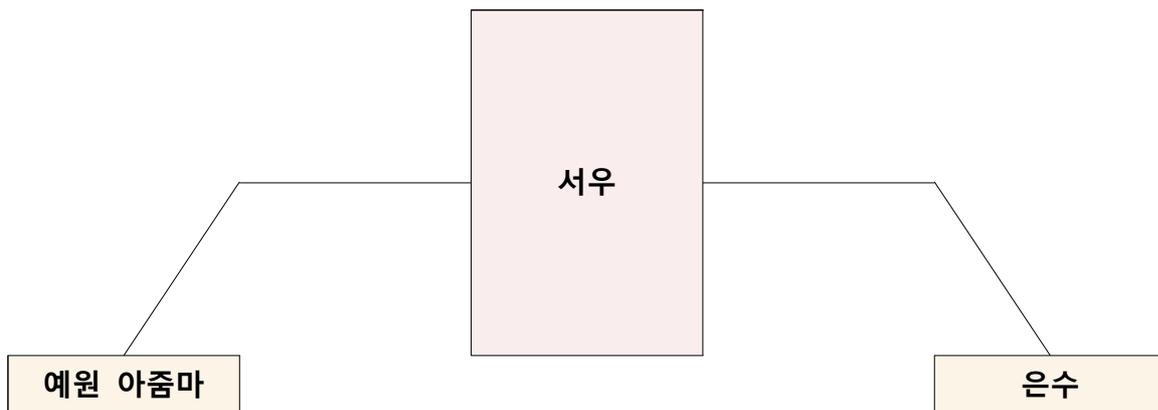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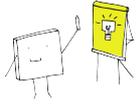
독서 후 ① 등장인물의 성격과 관계 변화

1. 『가족이 되다』를 읽고, 각 인물의 처지와 성격을 정리해 보세요.

인물	처지	성격
서우		
예원 아줌마		
경수		
은수		
정욱		

2. 『가족이 되다』의 내용을 떠올리며 서우와 각 인물 간의 관계를 정리해 보세요 (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도 적어 보세요).





독서 후 ② 서우의 이야기

※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서우야, 오늘 바깥……날……씨 어때? 친구는 많이 사귀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벚꽃이 필 거라는데……. 오늘은 조금 추웠어. 엄마! 빨리 꽃이 피면 좋겠지? 서준이랑 엄마랑 벚꽃 보러 가게. 우리 예전에 천번 벚꽃 터널 걸었던 거 기억하지? 예뻐잖아, 그치? 우리 꼭 다시 가자, 엄마……. ㉠친구? 친구야 많지. 내가 누구야? 엄마, 이래봐도 마당발이야. 친구 많이 생겼어. 걱정 마, 엄마!”

엄마는 내 말에 얼굴이 환해졌다. 나는 속으로 ‘참 잘 말했어.’라고 생각했다. 마음 한쪽이 텅 비는 것 같은 것은 어쩔 수 없었지만…….”

(나) “원망이란 건 안 해 봤니? 왜 내가…… 왜 나만……. 이런 원망.”

“아저씨, 제 말이 좀 이상할지 모르겠는데요. 엄마가 다시 못 올 곳으로 간 사실이 지금도 꿈이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누굴 원망하겠어요? 늘 집에 돌아왔을 때 엄마가 살아 있기를 얼마나 바랐게요. 문을 열 때마다 느끼는 공포가 너무 컸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동안 겪었던 공포 속에서는 해방이 되었어요. 마치 제 안에 서로 다른 둘이 사는 것처럼 ㉡둘 다 제 솔직한 마음이에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말을 드디어 해 버렸다. 그것도 생각지도 않았던 아저씨한테….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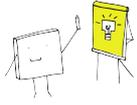
“아저씨, 솔직한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엄마 장례 치르고 온 날 얼마나 폭 잤는지 지금도 엄마에게 미안해요.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벌떡 일어나 늦잠 자지 않은 척 얼마나 바빠 준비했는지 몰라요.”

1. ㉠에서 서우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내가 서우라면 엄마에게 어떻게 말했을 것 같나요?

2. ㉡에서 서우의 두 마음은 무엇인가요?

서우의 두 가지 마음	

3. 서우가 아저씨에게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짐작해서 써 보세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한 뒤의 서우의 마음은 어땠을지도 적어 보세요.



독서 후 ③ 예원 아줌마의 이야기

※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뭐예요? 하나 가면 하나가 와서 다시 막고 서서,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비켜야 나가든 말든 할 거 아니예요? 매일 아침 이게 무슨 난리예요? 이 아파트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만 살아요? 정말 짜증나 죽겠어. 시청에서는 뭐 하는 거야? 이런 불편 하나 해결해 주지도 않고 말이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살 수가 없어.”

(중략)

“애가 없어서 이해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방금? 어쩜 사람들 생각하는 것하고는……. 편협하기 짝이 없군.”

“저기요, 듣자듣자 하니 말씀이 심한 거 아니예요?”

“내 말이 심해요? 어디 누구 말이 심한지 한번 따져 봅시다. 한쪽에 치우친 당신들의 논리라면 애 있는 당신들은 배려와 사랑이 넘쳐나겠군요? 다 내 애 같다고요? 웃기지 말라고 해요! 자기 애들만 최고잖아요. 길 가다 넘어진 애 한 번이라도 일으켜 세우고, 옷 털어 준 적 있어요? 애 혼자 울고 있으면 왜 우냐고 물어본 적 있어요? 나는 단지 길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오는 어린이집 버스 때문에 내가 얼마나 피해를 보는지 알아요? 경우 없이……. 그 저 자기 애들만 잘 타고 가면 그만이죠? 재 봐요! 저도 어리면서 아기 안고 오는 저 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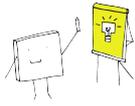
(나) “다음에 서준이 오는 거 대비해서 거실에 폭신한 매트 깔아야겠어, 여보!”

“아, 그래요. 여보! 제가 위층 애기 엄마한테 물어……. 으하하하하하!”

아줌마는 말을 잊지 못하고 숨이 넘어가게 웃었다. 아저씨도 소파에 쓰러져 웃었다.

1. (가)에서 아줌마가 화를 낸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2. (나)에서 아줌마의 상황과 처지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3. 아이를 키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갈등은 사회의 여러 부분에서 드러납니다. 서로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도우면 좋을까요? 나라에서 해 줄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생각해 보고, 표에 적어 보세요.

어떤 갈등이 있을까?	아이가 있는 사람의 배려	아이가 없는 사람의 배려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것
아이를 데리고 비행기를 탄 사람이 있는 상황			
워킹 맘이 아이 때문에 일찍 퇴근해야 하는 상황			



독서 후 토론&논술_입양 가족 이야기

※ (1~3) 서준이와 예원 아줌마는 ‘입양’으로 새로운 가족이 됩니다. 하지만 입양 가족에 대한 편견은 아직 많습니다. 다음 기사를 읽고 ‘편견’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입양가족들이 받아야 하는 불편한 시선은 상상 이상입니다. ‘입양부모는 좋은 사람이자’ ‘낳은 자식처럼 키울 수는 없지 않나’ ‘힘든 선택 했네’ ‘언젠가 친부모를 찾아갈 거야’ ‘사춘기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주변의 편견은 천차만별.

이런 시선을 피하기 위해 ‘비밀입양’을 선호하는 가족들도 여전히 많죠. “나와 남편에게는 마냥 사랑스러운 아이임에도 그들은 불쌍한 아이로 대해 속이 상했어요.” 박선화(가명·50대)씨는 이웃에게 입양 사실이 알려지는 게 싫어 아직도 3년에 한 번꼴로 이사를 다닙니다.

입양아들이 차별적 시선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곳 중 하나는 학교. “중학생 때 담임선생님께서 ‘부모님이 직접 낳은 형과 너를 차별하지 않느냐’고 공공연하게 물었죠.” 초등학교 때 입양 사실을 알게 된 김모(21)씨는 늘 친구들로부터 ‘가짜 엄마와 산다’는 놀림을 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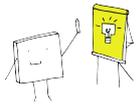
TV 드라마에서 입양을 부정적 소재로 삼는 것도 입양 부모들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대다수 드라마에서 생부모의 존재에 환상적 의미를 부여하고 결국엔 입양아가 생부모를 찾아 떠나도록 그리며 ‘혈연 중심’ 고정관념만 재생산하고 있죠.” (신용운 전국입양가족연대 대표)

일부 입양아동 학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모든 입양부모’를 싸잡아 범죄자처럼 여기는 시선도 여전합니다. 실제로 아동 학대 주범은 양부모가 아니라 친부모가 압도적 비율로 더 많은데도 말이죠.

(한국일보 2018.4.18.)

1. 입양 가족을 괴롭히는 편견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위의 글에서 찾아 정리해 보세요.

부모를 향한 편견과 말	아이들을 향한 편견과 말	TV에서 나오는 편견
예) -입양 부모는 좋은 사람이야.		



독서 후 토론&논술_입양 가족 이야기

2. 내가 정리한 표를 보고, 그 편견에 반박하는 글을 써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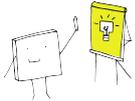
부모를 향한 편견과 말	아이들을 향한 편견과 말	TV에서 나오는 편견
<p>예) -입양은 착한 일을 하기 위해 하는 게 아니다. 아이를 입양해서 '대단하다, 장하다'라고 말하기보다 '축하한다고 말해 줘야 한다.</p>		

3. 정리한 내용 중 혹시 내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 있나요?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리고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가족이 되다 (교사용/ 2급,중학교1~2학년)

단비청소년 | 김영주 지음



정답과 해설

[독서 전]

1. (예시답안) 1 예시 답안) 표지에 나와 있는 두 아이는 가족일까?
 2 예시 답안) 뒤에 그림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이 아이들과 무슨 관계일까?
 3 예시 답안) 표지에 비가 오는 날을 그린 이유가 있을까?
2. 1) ⇨ 부부예겐 아이가 없고, 소년예겐 부모님이 안 계시다.
 2) ⇨ (예시답안)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 가족은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더욱 배려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사이이기 때문이다.
 3) ⇨ (예시답안) 조건 없이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공간과 사람들.

[독서 중]

어느 부분인가요?	어떤 점이 특히 인상적인가요?
<p>예시 답안) [14쪽] “제발 부탁이야. 날 투명 인간 취급해 줘. 애들아! 나도 내게서 냄새나는 거 알아. 그런데 어쩔 수 없는데 어떡해?”라고 사정해 보고도 싶었다. 하지만 그런다고 멈출 아이들이 아니었다. 주먹으로 한 대 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았지만, 오늘도 간신히 참아 냈다. 이럴 때는 나도 내가 아니고 싶다. 주먹을 어깨 위로도 올리지 못하고 볼끈 쥐기만 한 채로 ‘부르르’ 떨다 말았다.</p>	<p>서우가 아픈 엄마와 어린 동생을 보느라 힘들 텐데, 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게 너무 안타까웠다. 특히 아이들과 맞서 싸우지도 못하고, 참기만 하는 서우의 모습이 너무 슬펐다.</p>
<p>예시 답안) [48쪽] 우리 엄마는 밀알 보육원'에서 자랐다. 그곳이 엄마의 집이었다. 내게는 말하자면 외갓집이 된다. 엄마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보육원에서의 기억이 어린 시절의 시작이자 전부라고 말했다. 처음 그곳에 간 엄마는 거의 일 년 넘게 말을 안 해 병어리라는 놀림까지 받았다고 했다.</p>	<p>아빠도 안 계시고, 엄마도 아프신데 왜 다른 가족들이 도와주지 않는지 궁금했다. 그런데 서우의 엄마도 가족이 없다고 하니 이해가 되었다. 엄마가 없으면 서우와 서준이는 정말 둘뿐이라는 생각에 막막할 서우의 심정이 더 잘 이해가 되었고, 서우가 서준이를 왜 끔찍하게 아끼는지도 이해가 되었다.</p>
<p>예시 답안) [156쪽] “서우야, 잘 다녀와! 이따 보자. 사랑해!”</p>	<p>서우에게 새 가족이 생겨서 너무 기뻐다. 늘 아픈 엄마만 보던 서우에게 손을 흔들어 배웅해 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엄마가 생긴 걸 보고, 눈물이 날 뻔했다.</p>

[독서 후 ① 등장인물의 성격과 관계 변화]

1. 예시답안

인물	처지	성격
서우	예시 답안) 아픈 엄마와 어린 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기도 한다.	예시 답안) 힘든 상황에서도 꾀꾀하게 버티려고 한다. 최선을 다해 가족을 돌보려고 한다.
예원 아줌마	예시 답안) 아이가 없다. 주변 아이들이나 아이 엄마들에게 입바른 소리를 많이 한다.	예시 답안) 까칠한 모습도 있지만, 서우에게 몰래 반찬을 가져다주고,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등 따뜻한 면도 있다.
경수	예시 답안) 엄마 아빠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큰아버지 댁에서 산다. 종종 서우를 위로해 준다.	예시 답안) 슬픔에 빠져들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한다. 서우를 위로하고, 보듬어줄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
은수	예시 답안) 보육원에서 살고 있다. 보육원에 들어오기 전에는 떠돌이 생활을 했다.	예시 답안) 자기보다 서우에게 더 관심이 쏠리는 걸 싫어하며, 선생님 앞에서와 아이들 앞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정욱	예시 답안) 서우보다 늦게 보육원에 들어왔다. 얼굴에 흉터가 많고, 나쁜 꿈을 자주 꾀다.	예시 답안) 상처가 많지만, 당당하게 진실을 말할 줄 안다.

2. 서우-예원 아줌마/ 예) 처음엔 서로에게 오해가 있었지만 서우의 처지를 알고부터 이해하고,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 준다.

서우-은수/ 예)은수는 보육원에서 받는 사랑을 서우에게 빼앗길까 봐 서우에게 누명을 씌우기도 한다. 하지만 둘은 화해하고 친구가 된다.

[독서 후 ② 서우의 이야기]

1. 예시 답안) 아픈 엄마에게 걱정거리를 주고 싶지 않아 거짓말을 했다. 내가 서우라도 엄마에게 거짓말을 했을 것 같다.

2.

서우의 두 가지 마음	
집에 돌아왔을 때 엄마가 살아 있기를 바라는 마음.	늘 엄마가 살아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공포감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3. 예시 답안) 아저씨가 서우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늘 어른스러운 척, 괜찮은 척하던 서우는 솔직하게 말한 뒤에 자기의 진짜 모습을 찾았다고 생각했을 것 같다.

[독서 후 ③ 예원 아줌마의 이야기]

1. 자기에겐 아이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 둔 부모가 자기 아이만 챙기는 모습에 더 화가 났다.
2. 아이가 없을 때 아이가 일으킬 수 있는 소란에 짜증을 내던 입장에서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하는 처지로 바뀌었다.
- 3.

어떤 갈등이 있을까?	아이가 있는 사람의 배려	아이가 없는 사람의 배려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것
아이를 데리고 비행기를 탄 사람이 있는 상황	예) 아이가 울 것에 대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양해를 구한다.	예) 비행기에서 아기가 무서워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해준다.	예) 아이가 있는 사람 주변 좌석은 할인해 준다.
워킹 맘이 아이 때문에 일찍 퇴근해야 하는 상황	예) 업무 시간에는 최선을 다해 일한다.	예) 자기에게도 있을 수 있는 상황임을 알고, 이해해 준다.	예) 언제든지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마련한다.

[독서 후 ④ 한 가족의 이야기]

1. 예) 강압적으로 아이를 대하지 않고, 아이의 의견을 잘 들어주고 함께 의논하는 부모 등.
2. 예) 저와 서준이의 엄마 아빠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예시답안: 서우야, 나도 가족 없이 자랐기 때문에 너에게는 꼭 아름다운 가족을 만들어 주고 싶었는데. 먼저 떠나서 미안해. 그래도 너와 서준이에게 좋은 가족이 생겨서 다행이야. 이제 아픈 엄마는 잊고, 새로 생긴 엄마 아빠랑 서준이 넷이 행복해야 해. 사랑해. -엄마가-

[독서 후 토론&논술_ 입양 가족 이야기]

1

부모를 향한 편견과 말	아이들을 향한 편견과 말	TV에서 나오는 편견
예) -입양 부모는 좋은 사람이야. -아이가 언젠가는 친부모를 찾아 갈 거야. -낳은 자식처럼은 키우지 못할 거야. -입양 아동 학대 사건 후에 범죄자처럼 보는 시선.	-입양된 아이는 불쌍해. -직접 낳은 아이와 차별당할 거야. -가짜 엄마와 산다.	-생부모의 존재에 환상적인 의미를 부여함. 결국엔 입양아가 생부모를 찾아 떠나도록 그림.

2.

부모를 향한 편견과 말	아이들을 향한 편견과 말	TV에서 나오는 편견
<p>예)</p> <p>-입양은 착한 일을 하기 위해 하는 게 아니다. 아이를 입양해서 '대단하다, 장하다'라고 말하기보다 '축하한다고 말해줘야 한다.</p> <p>-아이가 친부모를 찾을지 말지는 그 아이의 결정이다. 아이의 선택에 대해 미리 말하는 것을 옳지 않다.</p> <p>-입양도 '가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낳은 자식과 입양한 자식을 나누어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p> <p>-입양 아동 학대보다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훨씬 많다. 학대가 일어나는지는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잘 살펴야 할 문제이다.</p>	<p>-누군가가 불쌍한지 아닌지는 타인이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나 생각이 입양 아동을 더욱 움츠러들게 만들 수도 있다.</p> <p>-아이가 직접 차별당한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차별당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 됐다.</p> <p>-가짜 엄마와 산다. 꼭 낳은 엄마가 '진짜 엄마'일까? 키워준 엄마도 '진짜 엄마'이다.</p>	<p>-'생부모'에 대한 환상을 부여하는 방송은 잘못되었다. 드라마에서 자주 '출생의 비밀'에 대해 나오고, 그걸 충격적이게 받아들이는 장면이 많다. 이런 콘텐츠보다 입양 가족의 행복한 모습과 다양한 가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방송을 늘려야 한다.</p>

3.

예) 입양한 부모가 '훌륭하다'라는 말을 좋아할 줄 알았다. 그런데 『가족이 되다』와 기사를 읽고 보니 '훌륭해서' 입양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가족이 된다는 걸 알게 되었다. 앞으로 누가 입양이 되었다고 말하면 '축하한다'고 말해줘야겠다.